

The Future _ Real Power X II

거짓의 시대! 정직함이 능력입니다.

1. 정직한 후보

2020.2월 라미란이란 여배우가 주연을 한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이 영화의 홍보 타이틀이 재미있다.

〈어제까진 뽕쟁이, 오늘부터 정직한 후보?! 거짓말이 제일 쉬운 3선 국회의원 '주상숙'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진다. 하루아침에 거짓말은 1도 할 수 없는 '진실의 주동이'를 갖게 된 것!〉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예고편만 보아도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주제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부동의 일위 자격은 그 리더의 능력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정직'은 영적인 속성이다.

2. 정직

(1) 정직의 정의

* Honesty: 진실을 말함, 정직함의 가치 (quality)

- 칭송을 받을 정도의 정직함, 즉 정직함의 상태를 말한다.

* Integrity: 나누어지지 않는 완전함 (an undivided or unbroken completeness)

- 완전히 진리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한다.

사전적 정의로 보면 정직이 하나님의 속성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3:14절에 하나님 존재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

[출애굽기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정직은 무엇인가? 나누어지지 않는 완전함이다. 그 완전함이 진리이다. 나누어지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 존재 자신이시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것이다. 분리될 수 없다.

[이사야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어떤 거짓도 없다는 것이다. 진리 아닌 것을 생각할 수도 없다. 그림자도 있을 수 없다. 존재 자체가 진리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불변하다는 것이다. 영원하다는 것이다. 진리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2) 정직 - 신실함, 충성됨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이라 말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다. 인간과 다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그 다른은 바로 '신실함'이다. (You are so faithful -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편 33: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원어로 보면 시편 33:1절에 '정직한 자들'이라 표현할 때 '야샤르-yashar'라는 단어를 쓴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라는 뜻과 함께 '곧은(upright)'이란 뜻이 있다. 곧은 사람, 바른 사람을 말한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는가?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닮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이 놀랍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충성된 자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신다. 그 예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누가 약속의 땅을 얻는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야샤르'의 속성을 지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3) 정직 -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오늘 시편 33:1절을 보라.

[시편 33:1]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는가? 정직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정직이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질 풀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오늘 피었다 없어질 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똑같은 존재들이란 사실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보라. 아담을 보라. 가인을 보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도 너는 완전한 존재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단순히 정직함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다. 거짓의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삶, 결국 양심마저 죽은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편 33:4, 8]

4 여호와와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8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8절의 기록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3. 하나님과의 동행, 작은 일에 정직하는 일 (친밀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감을 말한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완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순종하여 지키려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정직함을 통해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정직함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식하는 것을 모든 삶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 거짓과 위선의 시대이다. 정직함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은 실패가 아니다. 능력 없음도 아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위선자와 같은 종교인들을 싫어하셨다. 다윗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던 이유는 하나이다. 다윗은 정직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정직한 자가 땅의 복을 받는다. 정직함이 능력이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신다. 정직함의 경작이 없으면 결정적인 때에 제자들처럼 거짓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